

케이스탯 2020년 11월 정기지표

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

- '올바른 방향' 55%로 소폭 상승
- 2030세대,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'옳은 방향' 견인

경제 방향성 평가

-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, 여전히 우세

5년 후 대한민국 미래 전망

- 대한민국 미래 전망 혼동 양상 뚜렷

정부 신뢰도

- 정부에 대한 국민적 태도, 여전히 혼전

정부정책 만족도

- 정부정책 '만족 않는다' 여론 우위 지속

개인 행복도

- 어제 하루 '걱정 많았다' 지속적 우세

계층상승 가능성 평가

- 개인 노력으로 계층상승, '불가능하다' 고착 양상

• • • • 일러두기

- ❖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, 세부항목의 합이 100%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.
 - ❖ 중복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%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.
 - ❖ 본 리포트에서 n 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.
 - ❖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.
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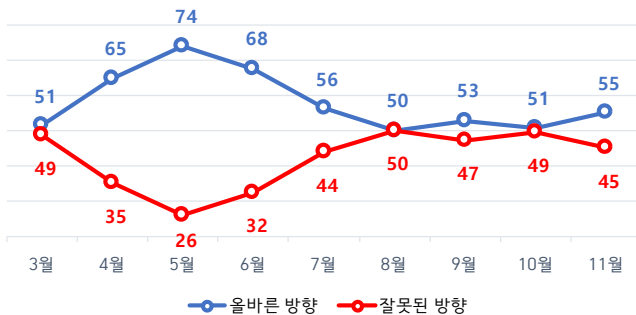
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

※ '올바른 방향' 55%로 소폭 상승

- ▶ 국민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전반적 방향성에 대해 8월부터 석 달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나, 11월 들어 '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'는 의견으로 기운 양상임
- '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' 55% vs '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' 45%로 격차가 10%p로 벌어짐
- ▶ '올바른 방향'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△2050세대 △중도층, 진보층 △인천.경기를 제외한 전 지역 △블루칼라, 화이트칼라, 주부, 학생 계층 등임
- 인천.경기지역은 '올바른 방향'과 '잘못된 방향'이 공히 50%로 대등하게 나타남
- ▶ '잘못된 방향'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△60대이상 △보수층 △자영업자, 은퇴.무직자 등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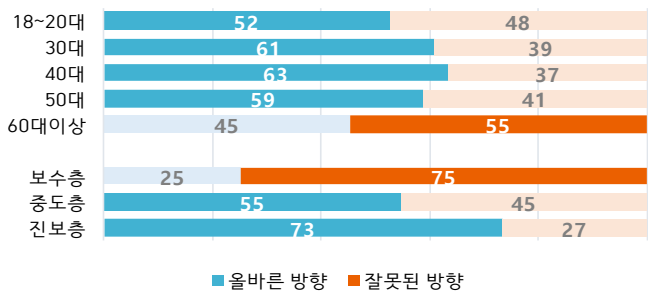
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추이 : 국민전체

(자료:케이스탯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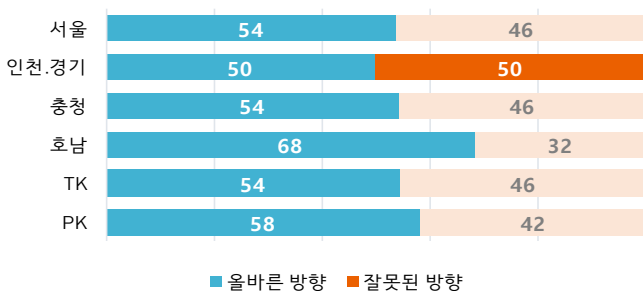
11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: 연령별,이념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11.08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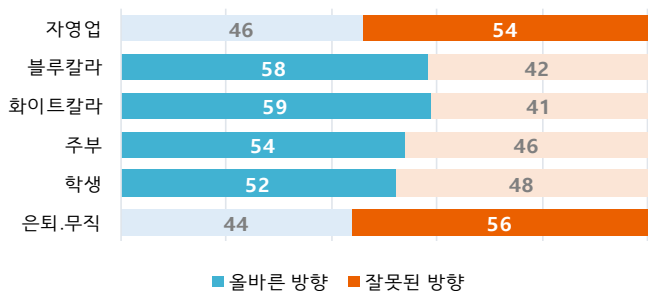
11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: 지역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11.08조사,단위:%)



11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: 직업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11.08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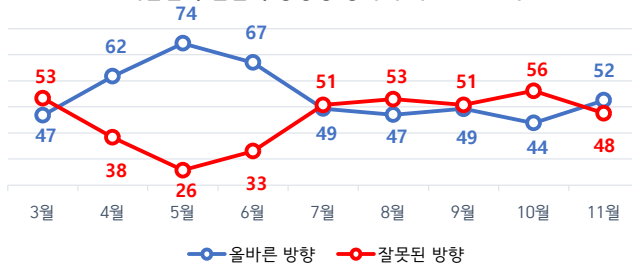
Kstat Point

- ☑ 당초 11월은 코로나19 진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아래 정부정책 등 사회이슈가 부각되면서 '잘못된 방향'이라는 의견이 우세할 것으로 예측되었음
- ☑ 그러나 예측과 달리 '올바른 방향'이라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남
 - : 이러한 이유는 기본 전제였던 코로나19 진정세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과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겪고 있는 유럽·미국과 비교해 한국의 안전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으로 보임
- ☑ 다만, 11월의 긍정평가 반동이 지속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됨
 - : 주택 및 전세가격 급상승이라는 국내의 부정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요인(유럽·미국 등 코로나19 3차 대유행)이 큰 영향을 주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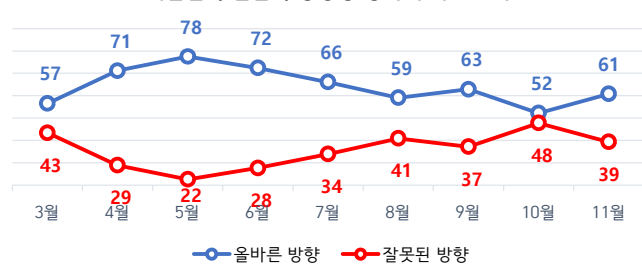
※ 2030세대,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'올바른 방향' 견인

- ▶ 연령별로 살펴보면 4060세대는 10월과 큰 차이가 없으나 2030세대는 긍정평가가 상승한 특징을 나타냄
- ▶ 18~20대는 7월부터의 부정평가 우세에서 긍정평가 우세로 역전했고, 30대는 긍정/부정평가가 근접했던 10월에서 벗어나 재차 긍정평가 확실히 우세 양상을 보임
- 30대는 10월 긍정/부정평가 간 격차가 4%p로 줄었으나, 11월에는 22%p로 다시 늘어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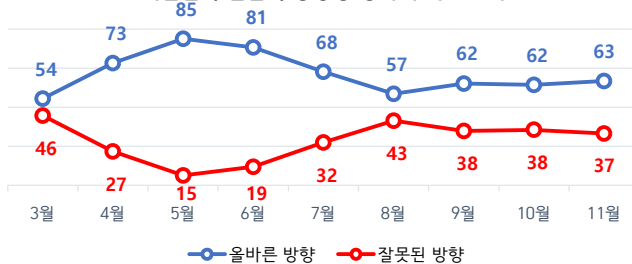
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추이 : 18~20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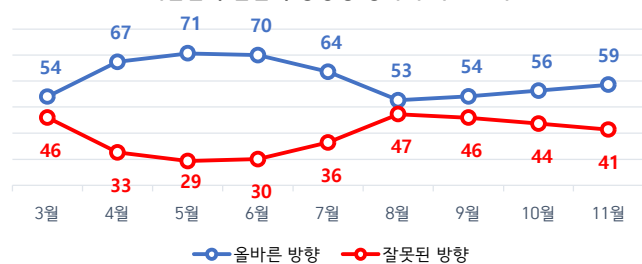
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추이 : 30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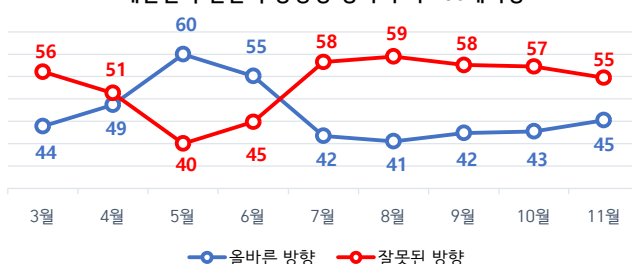
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추이 : 40대



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추이 : 50대



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추이 : 60대이상



Kstat Point

- ☑ 2030세대의 특징과 함께 주목되는 부분은 앞서 지역별 응답임
- ☑ 대한민국 방향성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던 TK와 PK지역이 11월 들어 긍정평가 우세로 돌아섬
 - : TK 지역 대한민국 방향성 평가, 10월 : 올바른 방향 47% vs 잘못된 방향 53%
 - 11월 : 올바른 방향 54% vs 잘못된 방향 46%
 - : PK 지역 대한민국 방향성 평가, 10월 : 올바른 방향 44% vs 잘못된 방향 56%
 - 11월 : 올바른 방향 58% vs 잘못된 방향 42%
- ☑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를 두고 8월부터 석 달 동안 치열하게 벌어진 공방이 11월 들어 긍정평가 우세로 귀결된 흐름이지만, 속단하기 어려운 것은 이러한 TK, PK 지역의 여론 때문임
- : 12월에 2030세대 여론과 함께 이 두 지역의 여론이 어떻게 표출될 것인지 주목되는 지점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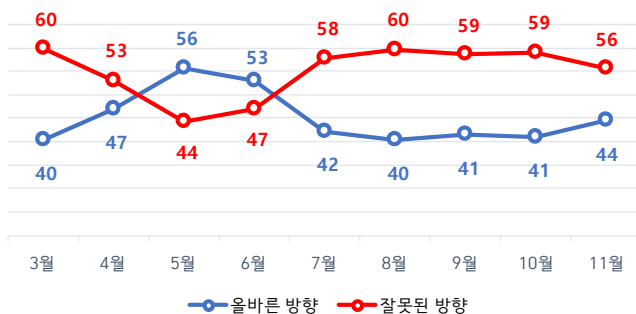
경제 방향성 평가

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, 여전히 우세

- ▶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전반적으로 '올바른 방향'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, 경제 방향성에 대해서는 '잘못된 방향'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음
- ▶ 대한민국 경제 방향성에 대한 부정평가 우세는 7월 이후 다섯 달째 지속되고 있음
 - 11월 경제 방향성 평가는 '올바른 방향' 44% vs '잘못된 방향' 56%로 조사됨
- ▶ 경제가 '올바른 방향'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△50대 △진보층 △호남 계층 등임
 - △40대와 △화이트칼라 계층은 '올바른 방향' 50%, '잘못된 방향' 50%로 의견이 팽팽함
- ▶ '잘못된 방향'이라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△2030세대, 60대이상 △보수층, 중도층 △서울, 인천.경기, 충청권, TK, PK △자영업, 블루칼라, 주부, 학생, 은퇴.무직자 계층 등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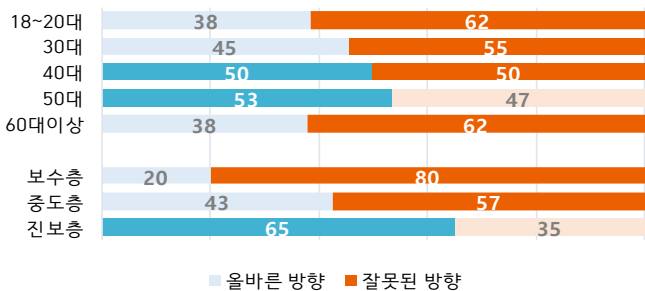
경제 방향성 평가 추이 : 국민전체

(자료:케이스탯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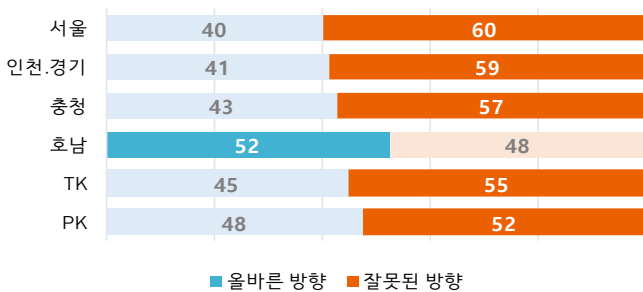
11월 경제 방향성 평가 : 연령별,이념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11.08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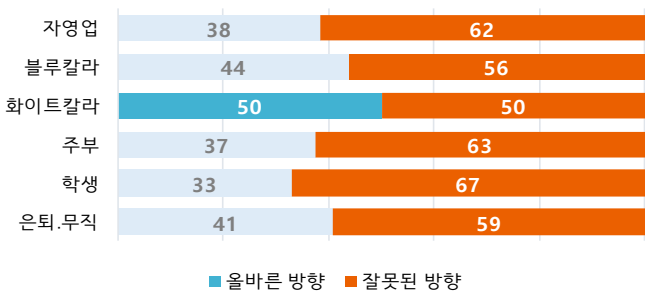
11월 경제 방향성 평가 : 지역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11.08조사,단위:%)



11월 경제 방향성 평가 : 직업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11.08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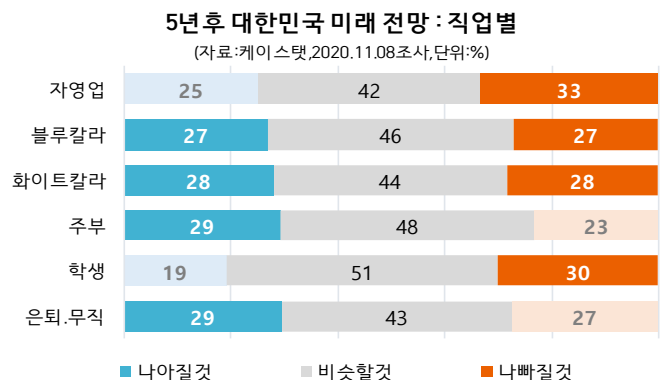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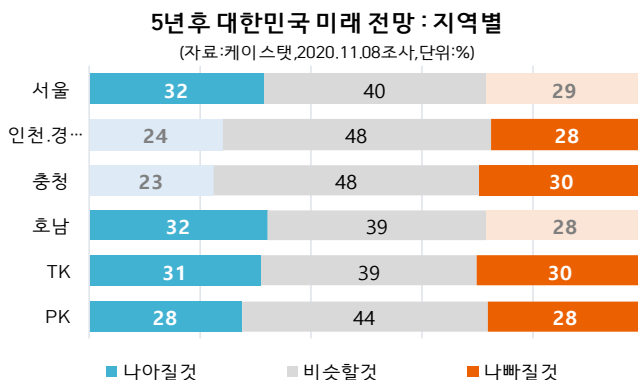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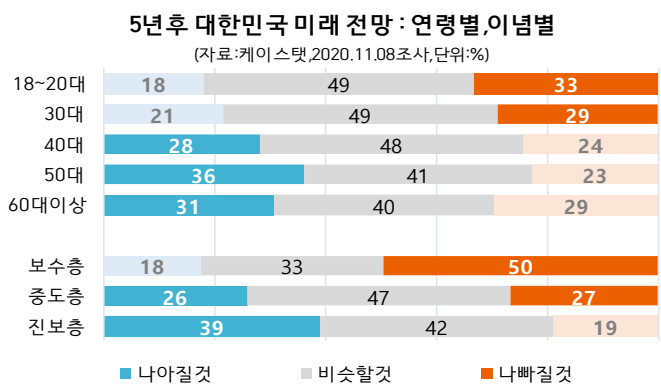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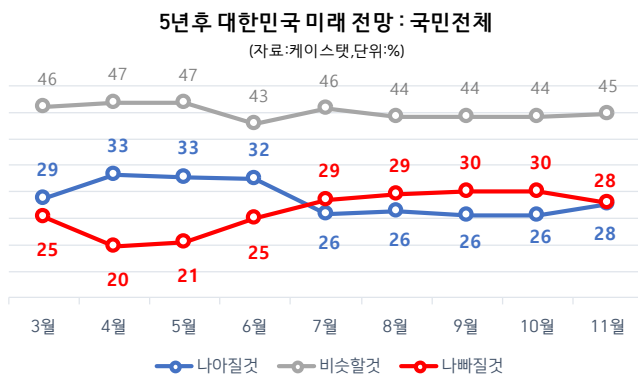
Kstat Point

- ☑ 11월 19일부터 수도권 '사회적 거리두기'를 현행 1단계에서 1.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, 향후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
- ☑ 여기에 방역 당국의 우려대로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코로나19가 또다시 확산세를 보일 경우 경제적 불안감은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

5년 후 대한민국 미래 전망

대한민국 미래 전망, 혼동 양상 뚜렷

- ▶ 5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'지금과 비슷할 것'이라는 응답이 45%로 높은 가운데 '지금보다 나아질 것'과 '지금보다 나빠질 것'이 공히 28%로 팽팽하게 나뉨
- ▶ '지금보다 나아질 것'이라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△4060세대 △진보층, △서울, 호남 △주부, 은퇴.무직자 계층 등임
- '나아질 것'과 '나빠질 것'이 대등하게 나타난 계층은 △중도층 △TK, PK △블루칼라, 화이트칼라 계층 등임
- ▶ '지금보다 나빠질 것'이라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△2030세대, △보수층, △인천.경기, 충청권 △자영업, 학생 계층 등으로 조사됨



Kstat Poin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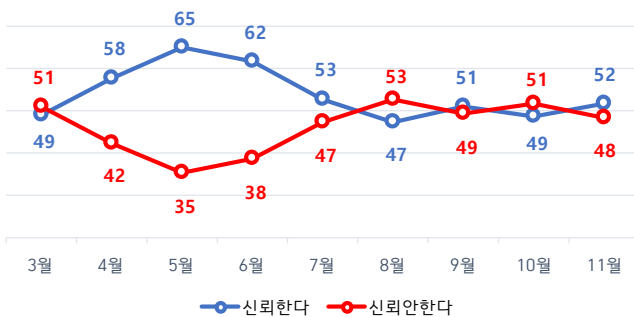
- ☑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희망과 절망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됨
- ☑ 이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, 경제 방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합쳐진 결과로 분석됨
- ☑ 향후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국민적 희망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 불안감 해소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임
- ☑ 이와 관련해 정부 여당은 16일, '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'를 갖고 향후 경제비전을 재차 강조함
: 또한 같은 날 유승민 전 의원은 사무소 개소식 인사말을 통해 다음 대선은 '결국 경제다'고 주창함
- ☑ 코로나19로 무너져가는 국민의 경제적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여야 간 경쟁이 이미 시작된 흐름임

▣ 정부 신뢰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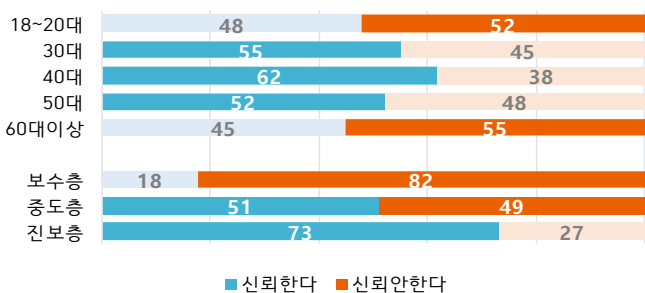
※ 정부에 대한 국민적 태도, 여전히 혼전

- ▶ 정부를 신뢰하는지 여부를 두고 국민들은 7월 이후 다섯달 연속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음
- ▶ 11월 조사결과 정부를 '신뢰한다' 52% vs '신뢰 안한다' 48%로 '신뢰한다'는 의견이 근소하게 우위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는 혼전 양상이 유지되고 있음
- ▶ 정부를 '신뢰한다'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△3050세대 △진보층 △서울, 호남, PK △화이트칼라, 주부 계층 등임
- '신뢰한다'와 '신뢰 안한다'는 의견이 팽팽한 계층은 △중도층 △TK △블루칼라 계층임
- ▶ '신뢰 안한다'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△18~20대, 60대이상 △보수층 △인천.경기, 충청권 △자영업, 학생, 은퇴.무직자 계층 등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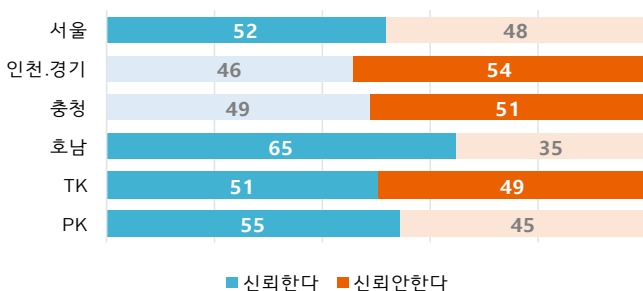
정부 신뢰도 추이 : 국민전체
(자료:케이스탯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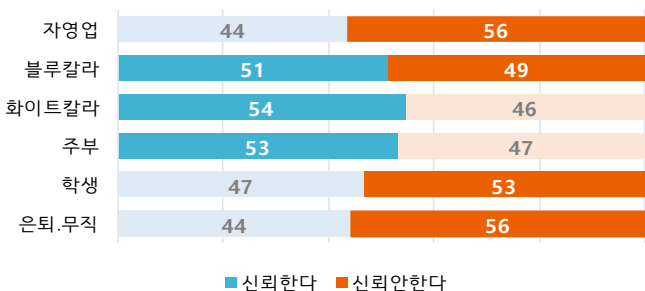
11월 정부 신뢰도 : 연령별,이념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11.08조사,단위:%)



11월 정부 신뢰도 : 지역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11.08조사,단위:%)



11월 정부 신뢰도 : 직업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11.08조사,단위:%)



Kstat Point

- ☑ 사실상 정부 신뢰도는 국민 전체적으로는 물론 계층별로도 팽팽한 흐름이 유지되고 있음
: 뚜렷하게 의견이 갈리는 계층은 주관적 이념성향으로, 진보층은 정부를 신뢰하고 보수층은 신뢰하지 않고 있음
- ☑ 이는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를 두고 모든 계층에서 의견이 충돌하는 것으로, 이른바 '진영 논리'가 전 계층에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됨
- ☑ 이번 미국 대선에서 드러났듯이 극심한 국민분열은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불안요인으로, 한국 사회에서도 이러한 불안요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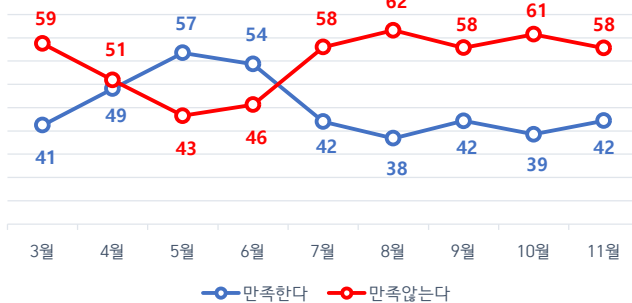
▣ 정부정책 만족도

※ 정부정책 '만족 않는다' 여론 우위 지속

- ▶ 11월 정부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'만족 않는다'는 의견이 58%로 다섯달 연속 우세를 기록함
 - '만족한다'는 의견은 42%에 그침
- ▶ '만족한다'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△40대 △진보층 △호남 등에 불과하고, 나머지 모든 계층은 '만족 않는다'는 의견이 우세함
- ▶ '만족 않는다'는 의견이 특히 높은 계층은 △60대이상 △보수층 △서울, 인천,경기 등 수도권 △자영업, 학생 등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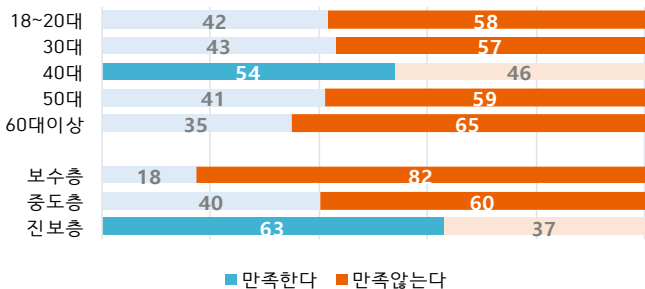
정부정책 만족도 추이 : 국민전체

(자료:케이스탯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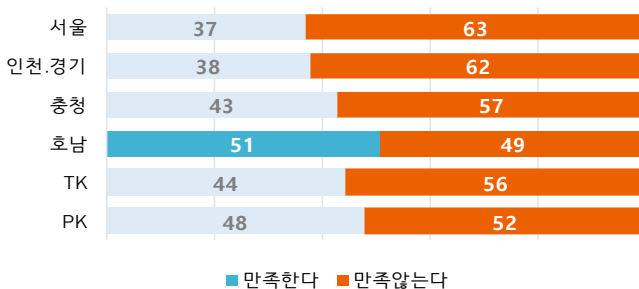
11월 정부정책 만족도 : 연령별,이념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11.08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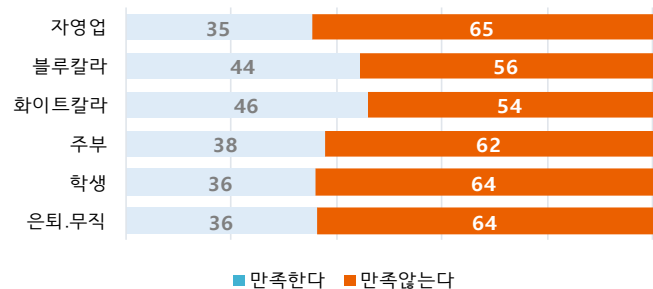
11월 정부정책 만족도 : 지역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11.08조사,단위:%)



11월 정부정책 만족도 : 직업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11.08조사,단위:%)



Kstat Point

- ☑ 정부 신뢰도 및 정부정책 만족도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3040세대의 여론임
 - : 이들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주택·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충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세대임
- ☑ 3040세대 모두 정부를 신뢰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, 정책만족도에서는 신뢰도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함
 - : 30대 정부 신뢰도 55%, 정부정책 만족도 43% / 40대 정부 신뢰도 62%, 정부정책 만족도 54%
 - : 이는 정부를 신뢰하지만 부동산 정책을 필두로 한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여론임
- ☑ 즉, 개별 정책에 대한 불만이 정부 신뢰도 하락으로 직결되지 않는 독특한 현상임
 - : 야권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매개로 현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데, 3040세대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임
 - : 앞으로도 이러한 3040세대의 특징이 유지될지 눈여겨봐야 할 대목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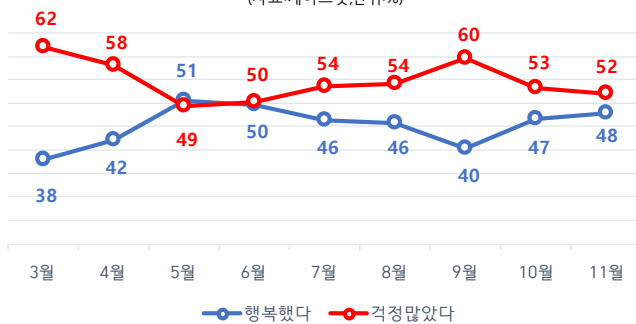
Ⅱ 개인 행복도

※ 어제 하루 '걱정 많았다' 지속적 우세

- ▶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행복하기보다 걱정이 많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
- ▶ 11월 조사에서 어제 하루 '행복했다'는 응답은 48%이고, '걱정 많았다'는 응답은 52%로 '걱정 많았다'는 응답이 지속적 우위를 보임
- 지표 조사를 실시한 3월 이후 '행복했다'는 응답이 근소하나마 우위를 보인 달은 5월 한달에 불과함
- ▶ '걱정 많았다'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△30대, 60대이상 △보수층 △인천.경기, TK, PK △자영업자, 블루칼라, 은퇴.무직자 계층 등임
- '걱정 많았다'와 '행복했다'는 응답이 팽팽한 계층은 △18~20대, 50대 △중도층 △서울 △화이트칼라, 주부, 학생 등임
- ▶ '행복했다'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△40대 △진보층 △충청권, 호남권 등에 그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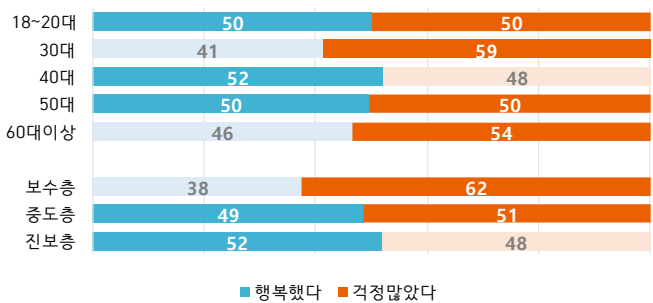
개인 행복도 추이 : 국민전체

(자료:케이스탯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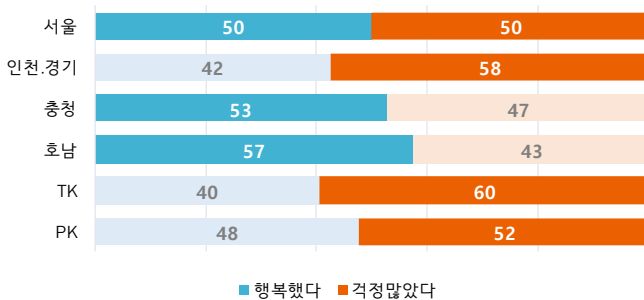
11월 개인 행복도 : 연령별,이념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11.08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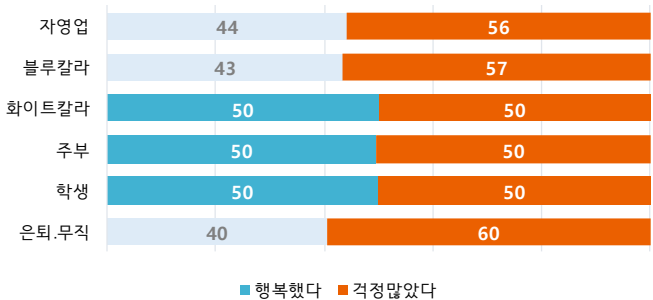
11월 개인 행복도 : 지역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11.08조사,단위:%)



11월 개인 행복도 : 직업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11.08조사,단위:%)



Kstat Point

- ☑ 최근 백신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지만, 코로나19 종식은 빨라야 내년(2021년) 연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
- ☑ 앞으로도 1년 가까이 코로나19의 불안 속에 살아가야 하기에 국민적 행복도가 높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
- ☑ 특히 우려되는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이 장기화되면서 피로감이 누적되고, 경제적 위기까지 해소되지 못할 경우 국민적 절망감이 극단적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점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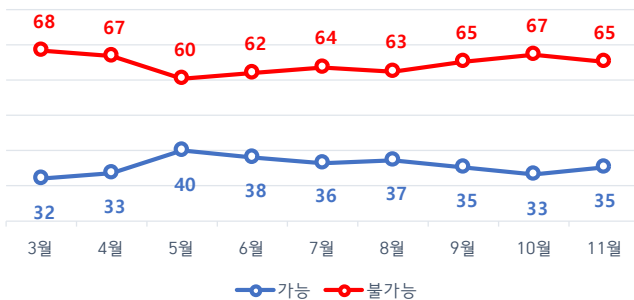
계층상승 가능성 평가

※ 개인 노력으로 계층상승, '불가능하다' 고착 양상

- ▶ 우리 사회는 개인 노력으로 계층상승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고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
- ▶ 조사를 시작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연속 '불가능하다'는 의견이 60%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
 - 이번 조사에서도 '가능하다'는 응답은 35%에 그치고, '불가능하다'는 응답은 65%를 기록함
- ▶ 모든 계층에 걸쳐 '불가능하다'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, 특히 높은 계층은 △50대 △인천.경기 △자영업자, 주부, 은퇴.무직자 계층 등임
- ▶ 상대적으로 '가능하다'는 응답이 높은 계층은 △18~20대 △PK △학생 계층 등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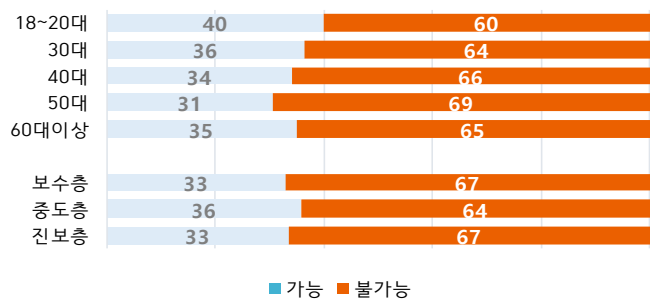
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추이 : 국민전체

(자료:케이스탯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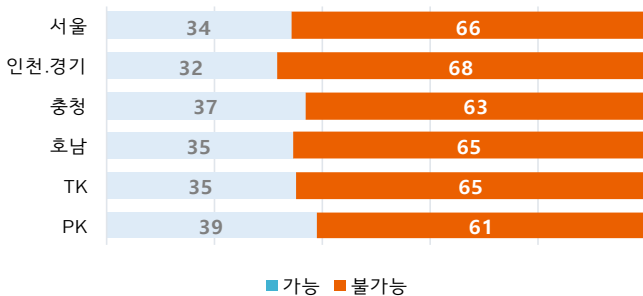
11월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: 연령별,이념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11.08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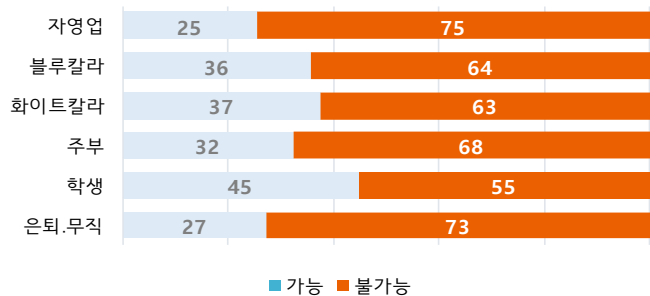
11월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: 지역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11.08조사,단위:%)



11월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: 직업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11.08조사,단위:%)



Kstat Point

- ☑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절망감이 극단적으로 표출할 때 '계층 갈등'이 기폭제가 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임
- ☑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계층간 회복(성장)은 K자 형(고소득 계층은 K자 윗선처럼 상승하지만, 저소득 계층은 K자 아래선처럼 하향함)을 보이고 있고, 이러한 경향은 가속화 되면서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
- ☑ 이렇듯 계층상승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고, 빈부 격차가 심화된 사회에서 계층간 적대감이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것을 막기란 쉽지 않을 것임
- ☑ 이미 우리 국민은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심각한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나, 국가와 정부의 선제적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

: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탯 리포트 16호 [국민 '불안 의식' 진단 및 분석] 참고

조 사 개 요

조 사 기 간

2020년 11월 6일(금) ~ 11월 8일(일)

조 사 방 법

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

조 사 기 관

케이스탯리서치

표 본 추 출

지역별, 성별,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

표 본 틀

케이스탯리서치 K-패널

유 효 표 본

총 1,076명

표 본 오 차

95%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$\pm 2.99\%$

가중치 부여방식

지역별, 성별, 연령별 셀 가중 부여
(2020년 10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)

케이스탯은 조사·통계·컨설팅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,
매월 2회 “**Kstat Report**”를 발간하고 있습니다.



- **Kstat Report**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(Buzz)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.
- **Kstat Report**는 사회, 경제, 생활,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.
- **Kstat Report**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가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.
- **Kstat Report**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.
- **Kstat Report**는 매월 2, 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.
- **Kstat Report** 정기 구독을 원하시면, 문의 메일(report@kstat.co.kr)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.



Kstat Report 17호(2020.11.26.)는

“불안한 사회, 정부와 지자체 역할 모색”을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